

2024
고2 문학
지학사

고2 문학 지학사 | 1(1)(1)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겹의 마음’, ‘흰꽃과 분홍꽃’,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수천의 빗갈’, ‘복숭아나무 그늘’, ‘저녁’의 의미를 주로 물어보므로 해당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여러 겹의 마음’은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흰꽃과 분홍꽃’은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을 의미합니다. ‘수천의 빗갈’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복숭아나무 그늘’은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하며, ‘저녁’은 대상에 관한 거리감이 사라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빗갈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는 이유 중 하나이다.
- ② ㉡: 시적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드러난다.
- ③ ㉢: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 ④ ㉣: 시간이 흘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시적 대상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이다.
- ⑤ ㉤: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시간이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 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빗갈이 있다는 것을
㉢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과 성찰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 ② ㉡: 화자가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가가지 않음을 강조한다.
- ③ ㉢: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함을 말한다.
- ④ ㉣: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을 한참 후에 이해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 ⑤ ㉤: 화자의 위치를 고려할 때,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 화자의 이중인격적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군.
- ② ㉡: 대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했던 화자의 태도를 말하고 있군.
- ③ ㉢: 대상에 가까이 접근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군.
- ④ ㉣: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무에 대한 원망이 담겼군.
- ⑤ ㉤: 외로움 때문에 심심함을 느끼는 화자의 상태를 표현하였군.

4.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가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의 방법과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 시이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시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시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시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① ㉠: 타인을 비유하고 있는 중심 소재이다.

② ㉡: 진정한 이해가 아닌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이다.

③ ㉢: 선입견으로 인해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나타난다.

④ ㉣: 진정한 이해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⑤ ㉥: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이다.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
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
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5. 윗글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 ㉣은 모두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은 ㉢, ㉣과 달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내재되어 있다.
- ③ ㉠, ㉡은 ㉢, ㉣과 달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은 ㉡, ㉣과 달리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은 ㉡, ㉣과 달리 대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신유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묻는 문제, 시행의 의미를 묻는 문제, 문학의 인식적·윤리적·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 감상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복숭아나무(자연물)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며,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작품의 특징으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학습 활동>에 제시된 안도현의 시 「간격」을 단독으로 제시하여,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을 다룬 정희성의 「숲」과 비교하여 감상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습 활동>에 제시된 안도현의 시 「간격」의 주제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 학습해 두어야 합니다.

【6~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A]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
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B]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
[C] 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
[D]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
니다
[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
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6. 윗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에는 복숭아나무가 지닌 참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 ② 화자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하고 있다.
- ③ 이 시에서 화자와 복숭아나무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과 타인의 관계로 확대하여 볼 수 있다.
- ④ 그렇게 본다면 복숭아나무는 주변의 이웃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 ⑤ 결국 이 시는 우리가 선입견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것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시이다.

7. ㉠~㉣ 중,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8. 윗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 있다.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처음에 화자는 대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다.
 ②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③ 하지만 차츰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④ 그리고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⑤ 그러나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끝내 실망하고 만다.

9.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화자는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② [B]에서 화자가 대상에 대해 품고 있는 선입견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③ [C]에서 화자는 대상이 눈부시게 빛나 보일 만큼 인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④ [D]에서 인정받기 위한 일념으로 ‘외로운 줄도 몰랐을’ 대상을 두고 화자는 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대상과 함께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나타낸다.
 ② ‘멀리로 멀리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③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외적인 모습, 양면성 등을 나타낸다.

- ④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⑤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 화자가 있다는 것은 이전에 느꼈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1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한다.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③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화하였다.
 ④ 경어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
 ⑤ 대화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고백하였다.

12. <보기>는 윗글을 감상한 후 그 깨달음을 적은 학생의 글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예전에 나의 아버지는 늘 엄하셔서 가까이하지 못할 만큼 무서웠기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다. 늘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진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

- ① [A]는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거리감을 두었다는 것인데, 나도 아버지를 엄하고 무섭다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못했어.
 ② [B]는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소통이 단절된 것인데, 나도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도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지.
 ③ [C]의 ‘수천의 빛깔’에서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나는 아버지의 주름을 보면서 아버지의 헌신을 깨닫게 되었던 거야.

- ④ [D]에서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다고 한 것처럼 나도 오랫동안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며 방황했었어.
- ⑤ [E]의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어.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
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
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1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타인과 통합하는 과정을 성찰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보기>의 ㉠~㉣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는 문학을 왜 읽는가? 하나는 문학이 우리에게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해 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을 읽으면 감동적이고 즐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문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우리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언어 예술이다. 이때 ㉢교훈을 쾌감 속에 담아 전해 준다는 점에서 예술성을 지닌다.

- ① ㉠: 수천 빛깔의 꽃을 피우고 싶어서 외로운 줄도 모른 채 외로웠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어.
- ② ㉠: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어.
- ③ ㉡: 나는 친구들과 갈등이 많았는데 이 시를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어.
- ④ ㉢: 이 시는 운율의 정형성을 통해 대상과 공감해 가는 과정에 대한 쾌감을 효과적으로 전해 주는 것 같아.
- ⑤ ㉣: 복숭아나무를 자세히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시를 읽고 난 후에는 보다 자세히 보게 되면서 관찰력이 많이 늘었어.

15. 윗글을 감상한 후 나눈 대화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이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멀리했던 거로군.
- ② 그래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대상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 ③ 그러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화자의 모습에서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④ 또한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에서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아의 성숙 과정을 볼 수 있어.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㉔: 시간이 흘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시적 대상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아니라,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① ㉑: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나무이며,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② ㉒: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㉓: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부셔 눈부셔'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㉕: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한다.

2. 정답 ④

㉔: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갖고 외면하던 화자가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다고 말한 점에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숭아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화자의 인식이지 '복숭아나무'가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㉔은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① ㉑: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성찰의 분위기와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② ㉒: '복숭아나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복숭아나무'를 외면하려 했던 화자의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특히 '멀리로 멀리로만'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회피하는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③ ㉓: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를

통해 대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㉕: '저녁'은 화자와 시적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사라진,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한다.

3. 정답 ②

㉒: '복숭아나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거리감을 느끼고 '복숭아나무'를 외면하려 했던 화자의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특히 '멀리로 멀리로만'을 통해 '복숭아나무'를 회피하는 태도가 강조되고 있다.

① ㉑: 화자의 이중인격적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숭아나무'가 복잡한 내면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대상에 관한 이해 부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③ ㉓: 다음 행의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를 통해 ㉓이 대상에 가까이 접근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사실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㉔: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화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나무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⑤ ㉕: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그늘'에서 발견한 꽃잎들이 진 후의 모습으로,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㉕을 외로움 때문에 심심함을 느끼는 화자의 상태를 표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④

㉔: 진정한 이해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부셔 눈부셔'라는 시구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㉑: <보기>의 '타인에 관한 진정한 이해'를 참고했을 때, ㉑는 타인을 비유하고 있는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다.

② ㉒: 화자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대상을 바라본 모습으로, 진정한 이해가 아닌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③ ㉔: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⑤ ㉕: 시적 대상에 대한 거리감이 사라진, 진정한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을 의미한다.

5. [정답] ③

㉑, ㉒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복숭아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㉓, ㉔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한 이후에 인식한 복숭아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① ㉑, ㉒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복숭아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㉓, ㉔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한 이후에 인식한 복숭아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② ㉑, ㉒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복숭아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㉓, ㉔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한 이후에 인식한 복숭아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㉓, ㉔은 ㉑, ㉒과 달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㉑, ㉒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복숭아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㉓, ㉔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한 이후에 인식한 복숭아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㉓, ㉔은 ㉑, ㉒과 달리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㉑, ㉒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복숭아나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㉓, ㉔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한 이후에 인식한 복숭아나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으므로, ㉑, ㉒은 ㉓, ㉔과 달리 대상을 피상적으로 바라본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6. [정답] ②

화자는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을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① 이 시는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③, ④ 이 시에서 화자와 복숭아나무의 관계는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주변의 이웃 사람을 포함한 타인, 나아가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로도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⑤ 이 시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관계의 모습을 제안하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7. [정답] ④

㉕: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 참모습을 의미한다.

① ㉑: 시적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의미한다.

② ㉒: 피상적으로 바라본 대상의 모습을 의미한다.

③ ㉓: 선입견과 편견으로 판단한 대상의 부정적 모습을 의미한다.

⑤ ㉔: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8. [정답] ⑤

2연에서 화자는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끝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복숭아나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다.

①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를 통해 처음에 화자는 대상과 거리를 두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처음에 화자가 복숭아나무와 거리를 두었던 이유는 5~6행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③ 7~9행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며 차츰 대상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④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을 알 수 있다.

9. [정답] ④

[D]에서 ‘복숭아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화자의 인식이지 ‘복숭아나무’가 인정받기 위한 일념으로 ‘외로운 줄도’ 모르고 꽃을 피워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① [A]에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화자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B]에서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복숭아나무’를 외면하려 했던 화자의 행동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화자가 대상에 대해 품고 있는 선입견, 편견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이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다.

③ [C]에서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부셔 눈부셔’라는 시구를 통해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이 강조되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복숭아나무’와 함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10. [정답] ③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외적인 모습, 양면성 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진정한 모습, 참모습을 나타낸다.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기 이전에 인식했던, 대상이 지닌 복잡한 내면을 나타낸다.

② ‘멀리로 멀리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거리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④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눈부셔

눈부셔’라는 시구를 통해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이 강조되고 있다.

⑤ 화자가 ‘복숭아나무 그늘’ 밑에서 ‘복숭아나무’와 함께 진정한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통해, 이전에 느꼈던 거리감이 사라지고 ‘복숭아나무’와 친밀감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정답] ⑤

윗글은 대화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독백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① 윗글의 마지막 행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윗글은 ‘복숭아나무’(자연물)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③ 윗글은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 여러 겹의 마음’ 등에서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심 소재인 ‘복숭아나무’에 초점을 모으면서 그것이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④ 윗글은 ‘-습니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사용한 경어체를 통해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12. [정답] ④

<보기>에 따르면, ‘나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나’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도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오랫동안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며 방황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며 방황했었다는 학생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A]의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은 대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의미하며, 화자는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다며 거리감을 두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나도 ‘예전에 나의 아버지는 늙엄하셔서 가까이하지 못할 만큼 무서웠’다고 하였으므로, 아버지를 엄하고 무섭다고 여겨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학생의 감상은 적절하다.

② [B]의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는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소통이 단절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기>에 따르면, 나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지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관심을 가지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였으므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도 관심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학생의 감상은 적절하다.

③ [C]의 ‘수천의 빛깔’은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의미한다. <보기>에 따르면, 나는 ‘아버지의 이마에 새겨진 깊은 주름을 보며 아버지가 그동안 자식을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셨는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주름을 보면서 아버지의 헌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학생의 감상은 적절하다.

⑤ [E]의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에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졌다. <보기>에 따르면, ‘늘 거리감이 느껴졌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든든한 울타리로 느껴진다. 앞으로는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라고 하였으므로, 나도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다는 학생의 감상은 적절하다.

13. 정답 ⑤

‘흰꽃과 분홍꽃’에서 색채어가 활용되기는 하였으나, 색채 대비를 통해 냉혹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① 윗글의 마지막 행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활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즉 ‘그 복숭아나무’를 피상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해 멀리하려 하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자는 ‘그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대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③ 윗글은 ‘복숭아나무’(자연물)를 의인화하여 표현함으로써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윗글은 대상(타인)과 통합하는 인식의 과정을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성찰적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①

②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의미한다. 윗글의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갖게 된 까닭을,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함으로써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우리 자신과 타인의 관계로 확대하여 해석한다면, 수천 빛깔의 꽃을 피우고 싶어서 외로운 줄도 모른 채 외로웠을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②는 문학의 인식적 기능을 의미한다.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마음을 읽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 결국 대상의 참모습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③은 문학의 윤리적 기능을 의미한다. 윗글은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는 점에서, 이 시를 통해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④ ④는 문학의 미적 기능을 의미한다. 이 시는 자유시로 운율의 정형성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습니다’와 같은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⑤는 문학의 미적 기능을 의미한다. ‘이 시를 읽고 난 후에는 보다 자세히 보게 되면서 관찰력이 많이 늘었어.’라는 감상은 문학의 미적 기능을 바탕으로 감상한 것이 아니라, 문학의 인식적 기능(②)을 바탕으로 감상한 내용이다.

15. 정답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그늘’에서 발견한 꽃잎들이 진 후의 모습으로,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복숭아나무를 인식하는 것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대상과 거리감을 두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화자의 모습에서 대상의 본질, 즉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이 강조되고 있으며, 대상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아의 성숙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있다.

16. [정답] ④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화자가 깨달음을 얻었던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이 사라진 이후의 상황으로, 화자가 나무가 외로워하는 것을 알고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이 시의 화자는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여 대상과 거리감을 두고 있었다.

② 화자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며 대상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소통하지 않고 그 나무를 '멀리로' 지나치고 있다.

③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화자의 모습에서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눈부셔 눈부셔'를 통해 대상과 세계에 관한 이해와 자아의 성숙 과정을 엿볼 수 있다.

⑤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대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화자와 대상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복숭아나무 그늘'로 들어가 대상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이해와 어울림의 시간인 '저녁'을 맞이하고 있다.

17. [정답] ②

윗글은 '그 복숭아나무', '그 나무', '그 여러 겹의 마음' 등에서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심 소재인 '복숭아나무'에 초점을 모으면서 그것이 일반적 대상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① 윗글에는 걱정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으며, '-습니다'와 같은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고백적 어조로 말하고 있다.

③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서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④ 화자의 위치를 '멀리서'에서 '그늘에서'로 이동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지 않다.

⑤ '흰꽃과 분홍꽃'과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의 대응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상(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일의 어려움과 보람'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기 위한 것일 뿐, 대상에 대한 편견의 심화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18. [정답] ⑤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에는 대상과 공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지만, 긍정적 미래를 다짐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① '흰꽃과 분홍꽃'은 화자가 피상적으로 본 대상의 모습으로, 화자는 대상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입견, 편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수천의 빛깔'로 나타난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즉 대상의 본질을 발견하면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이해가 시작되고 있다.

③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는 생각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인식으로, 대상의 내면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이해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화자가 깨달음을 얻었던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이 사라진 이후의 상황으로, 이를 통해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대상과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이루며, 자아가 성숙하는 화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19. [정답] ②

윗글은 선입견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었던 관계'를 표현한 작품이 아니며, '후회, 반성, 고백'하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윗글은 화자가 복숭아